

## 3월 28일 1분기 보라매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보라매병원 분리? 누구말이 진실

보라매부원장 ‘병원 분리하면 모든 직원은 본원 또는 분당, 강남센터로 발령 난다.’

보라매병원장 “분당병원을 어떻게 갑니까?”

3월 27일 보라매병원 신입직원 교육에서 신입직원들은 “보라매병원 부원장은 본원과 보라매병원이 분리되면 모든 직원이 1년 안에 본원 또는 분당병원 그리고 강남센터로 발령 난다는데 정말 분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1년 안에 모두 다른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인가?”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보라매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김병관 보라매병원장은 “분당병원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라고 했다.

보라매병원 측은 부원장이 무슨 근거로 신입직원 교육에서 구체적인 분리계획을 발언한 것인지 대답하지 않았다. 보라매병원장은 2017년 단체협약에서 보라매병원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거부했었다. 보라매병원 측의 분리운영의 공공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직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보라매전속직원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분리운영 계획을 중단하라.

### 직원안전 대책 건

업무중 발생한 간호사 손가락 절단 사건에 대해 병원은 “봉합 수술 후 현재 직무상 요양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3월 8일 교직원 안전 선포식을 진행했으며 엘리베이터 모니터 캠페인, 채혈실 안내문구 게시, 키오스크 남성 직원으로 교체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 성폭력 피해 방지 건

사회적 이슈가 된 성폭력과 태움에 대한 노사 공동 설문조사와 뱃지달기 제안에 대해 보라매병원은 ‘본원이 하면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배제하고 병원 측이 단독으로 뱃지를 배포했다. 지난해에도 보라매병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성폭력 실태와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거부했다.

병원의 독단과 짝 막힌 일처리 방식에 직원들의 답답함만 커져가고 있다.

###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건

보라매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동자대표단 구성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라매병원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하청업체 관리자가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보라매병원의 연구코디네이터, 재대혈은행, 공공의료사업단 등이 정규직 전환 누락 부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병원은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식판 수거 건

병동에서의 환자의 식사는 간병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라매병원의 간호간병통합

병동은 병동 간병인력부족으로 환자식판을 영양실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은 “영양실 또는 병동 중에 어느 부서의 인력을 증원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했고, 노동조합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반드시 병동 인력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과별 병상 조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요구 건**  
보라매병원은 최근 75병동에 대해 성형외과

등 외과 병상을 축소하고 75병동에서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고, 중증도가 높은 내과 병상을 새로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충원과 직원 교육은 전혀 없었고, 사전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병원의 막무가내식 강행으로 인해 직원들은 매우 고통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강행 중단을 요구하였고 병원장은 “현재 인력으로는 강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 국민건강을 포기하고 돈벌이를 선택한 대한의사협회에 항의 쇄도

‘박근혜 탄핵반대’를 외치며 극우보수 단체를 지지했던 최대집 후보가 의사협회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진보단체와 시민들도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그것은 부족한 건강보험 보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가 건강을 위협한다며 허무맹랑한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 더군다나 겉으로는 ‘국민건강수호’를 외치며 국민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과 과격한 발언을 듣고 있으면 극우보수 정치가의 막말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이 같은 행동의 진짜 이유는 부르는게 값이었던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막기 위해서다. 문재인 케어는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가정을 파탄시키는 ‘재앙적 의료비 지출’을 막아보자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포기하고 돈벌이를 선택했다. 이같이 국민을 호구로 보고 있는 의사협회에 거센 항의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향한 협박을 중단하고 국민의 엄중한 경고와 충고를 잘 새겨듣기를 바란다.

4.16세월호참사 4주기 국민 참여행사  
**4월16일의 약속  
다짐문화제**  
2014년 4월16일 그날의 기억을 잊지않고  
진실의 촛불을 밝혀주세요.

일시 : 2018년 4월14일 18:00 합창 공연 '진실의 하모니'  
2018년 4월14일 19:00 본 행사  
2018년 4월14일~4월16일 전시  
※ 4월14일~16일(3일간) 광화문 중앙광장 일대에서  
11:00~21:00 상설로 운영됩니다.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기억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2018년 임단협 투쟁을 시작합니다

간담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요구안을 만듭니다~

시작일 : 4월 17일(화) ~

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또는 회의실

신청 : 부서 대의원, 노동조합 사무실

문의 : (T) 3440~1